PET용기 생산동향 및 전망

Market Trend of PET Bottle

김 태 길 / (사)한국PET용기협회 전무이사

지루한 장마가 그치고 바야흐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의 절정에서 오늘도 우리 PET 용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찜통같은 공장에서 혹은 거래처 현장에서 더위도 잊은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주로 음료수용기로 쓰여지고 있는 PET 용기는 여름철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PET 용기는 그 어떤 포장재보다도 품질면에서, 위생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연스런 요구에 의하여 그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는 PET 용기는 우리생활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필요한 생필품 용기로써 전체 시장의 35%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PET 용기이지만 금년도의 극심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주 원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업계는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PET 용기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음료수 용기는 2003년도 년간 생산실적은 전년도에 비하여 3% 정도의 물량감소가 있었지만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하여 물량으로 약 1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물량이 증가된 원인은 작년말에 개발되어 금년부터 본격 출하가 된 맥주 PET병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또한 음료업체들의 월빙 음료 시리즈의 판촉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용량 선택이 가능하고 미려한 외관을 가진 PET병을 선호

〔표 1〕 음료수용기 생산실적 (수량 : 백만개 / 중량 : 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전년도대
수 량	1,215	1,434	1,489	1,486	1,452	△2%
중 량	50,138	60,996	62,446	62,269	60,621	△3%

〔표 2〕 생수용기 생산실적 (수량 : 백만개 / 중량 : 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3/전년도대
수 량	296	380	507	471	556	18%
중 량	10,853	13,764	18,828	17,640	20,290	15%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전년동기에 비하여 판매물량은 늘어났지만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년초부터 급격히 상승된 원료가격 및 부자재 가격 이상 등으로 손익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또한 PET 용기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수병은 20% 정도를 차지하여 있어서는 2003년도 생산실적은 전년에 비하여 음료수용기와는 달리 약 15%의 물량증가가 있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하여 14~15% 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수가 이제 가정에서도 상음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현재 생산업계는 중소생수업계와 대형생수업계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생수업계의 물량은 증가되지 못하고 있으나 농심의 제주삼다수, 진로의 석수, 롯데칠성의 아이시스, 해태음료의 평창샘물, 동원의 동원샘물 등 대형식음료 업체들이 생수시장에 참여하면서 양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 결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PET 용기의 6~7%씩을 점하고 있는 주류병, 장유병, 식용유병, 세제류병 등은 매년 소폭으로 증감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음료용기와 생수용기 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전년동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물량증가는 이루어 졌지만, 작년말부터 치솟기 시작한 원료가격이 30% 정도 급등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그에 상응하여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일부 거래처는 납품가격을 전혀 인상시켜 주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규격의 제품은 동업계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원가이하로 투매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성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PET 성형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업계는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고객인 식음료업계와는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서 공존공영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윈-윈 정신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ko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